

서점가 휩쓰는 '이건희신드롬' 실상은 이렇다

모두 6종 선보여 경쟁 벌이지만 판본들간 차별성 거의 없어

“1942년 대구에서 출생. 경남 의령에서 성장. 해화국민학교에 입학했으나 동경에서 국민학교 졸업. 이때 이미 영화와 골프책 탐독. 서울사대부중고 다닐 때는 레슬링부 활동. 와세다대를 거쳐 美 조지워싱턴대 대학원 졸업. 67년 결혼. 슬하에 1남3녀. 87년 삼성그룹 총수.”

삼성그룹의 총수 이건희 회장에 대한 간단한 약력이다. 한 그룹의 회장으로서 외부활동은 좀처럼 보이지 않던 그가 서점가에 등장, 경제인 뿐만 아니라 일반 독서인들에게 '읽혀지고' 있다. 이미 그에 관한 책으로 서점가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숫자는 초판 발행일). 「일류가 아니면 포기하라」(서울플랜기회실, 포도원, 8.31) 「이건희이야기」(강승구, 미래미디어, 9.1) 「삼성을 2류라고 말할 수 있는 삼성맨 이건희」(김낙봉, 하늘) 「이건희 신사고 신경영」(정현우, 자유시대사) 「이건희, 초일류만이 살아남는다」(감삼현, 일터와사람, 이상 9.10) 「마누라 자식 빼고 다 바꿔라」(이원배, 청맥, 9.20).

이건희회장의 경영전략 기술

6종의 책이 모두 '이건희신드롬'의 진상을 캐고 있는 것이다. 상기한 책들은 모두 '이건희'라는 인물의 라이프 스토리를 비롯해서 해외회의어록, 그의 경영철학, 경영혁신내용, 주요 연설문 등을 주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그러나 내용에 따라 각 출판사의 책이 갖는 차별성을 발견하기는 쉽지 않다.

'이건희 신드롬'의 시작은 삼성 제품이 경쟁력을 갖지 못했다는 반성에서 시작된다. 이

회장은 그 원인을 “사람의 의식이 바뀌지 않아서”라고 보고 있다. 이러한 원인분석 하에 이 회장의 주장하는 바는 크게 세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그 첫째는 '質 우선 경영방침'으로, 양보다는 질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 그 다음으로 이 회장은 '복합화'를 말하고 있다. 단순하게 말해서 '복합화'란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여러가지 상업적인 조건들을 결합시킨다는 뜻이다. 이외에 '국제화'도 이 회장의 신경영전략에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

삼성측에서는 그러나 이건희 회장에 대한 책을 그리 달가워하지 않는 듯하다. 그 이유로 각 출판사들이 이 회장의 허락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출판되었다는 점이다. 즉 출판사로서 '당연히'이거나 '도의적으로'라도 있어야 할 취재원에 대한 허락을 받지 않았다는 점이 삼성측으로부터 호의를 자아내지 못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외에 이 회장도 자신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는 것을 싫어하고 있다고 한다.

올해 초부터 각종 해외회의를 통해 자신의 경영구상을 선언하면서 재계의 찬사와 의혹을 함께 받아온 이건희 회장의 '구상'을 살펴볼 수 있는 이러한 책들이 쏟아지기 시작한 것은 8월말과 9월 중순 경까지.

책 출간일자를 보면 8월 말일에서 9월 20일까지로 9월 10일 하루에 3종의 책이 출간되었다는 것은 각 출판사가 기획을 세운 시기가 거의 일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출판사들은 기획을 세운 시기를 7·8월 경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 시기는 이건희 회장이 잡지나 신문에 얼굴을 드러내면서 '7시 출근 4시 퇴근'을 실시한 때로 각 출판사들이 모두 '아주

삼성그룹의 회장으로서 외부활동은

좀처럼 보이지 않던 이건희 회장이

서점가에 등장, 경제인 뿐만 아니라

일반독서인들에게 '읽혀지고' 있다.

이 회장에 관한 6종의 책들은 '이건희

신드롬'의 진상을 캐고 있기는 하지만

내용에 따라 각 출판사의 책이 갖는

차별성을 발견하기는 쉽지 않은

노릇이다. 갑자기 나타난, 이 회장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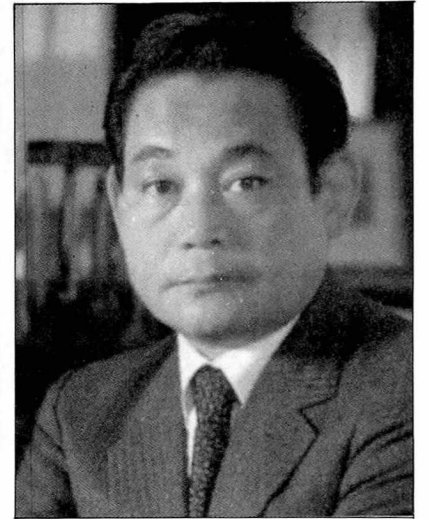
대한 출판가의 사정을 살펴본다.

우연히' 같은 내용의 책이 손을 대게 되는 결과로 나타나고 말았다.

종수 많지만 대개가 비슷한 내용

당초 이건희 회장에 대한 책의 예상 판매부수는 40만부 정도. 출판사에 따라서는 1백만부 정도가 팔릴 것이라 예상한 곳도 있다. 시장조사 결과 결코 적지 않은 판매량을 예상했던 출판사들이지만 6개 출판사가 서로 경쟁적으로 출판하다보니 나중에 책을 낸 출판사들은 판매부수가 예상을 훨씬 밑돌게 되었다고 한다. 또한 출판사의 이미지도 미미하게 나타나 빠르게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다. 미래미디어의 심순영 편집장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다른 출판사가 우리와 같은 기획을 추진하고 있는 줄을 몰랐다. 6종의 책이 중복출판물은 아니지만 내용상 차별성을 찾아볼 수 없는



이건희회장.

과당경쟁이라는 점에서 독자들에게 출판사의 이미지가 나쁘게 인식될 요소도 적지 않을 듯하다.”

6개 출판사 이외에도 몇몇 출판사들이 이건희 회장에 대한 책을 출판할 생각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청맥의 책과 제목도 유사한 「마누라와 자식을 빼놓고는 다 바꿔보자」는 책을 출판하려던 책마을(대표 이봉수)은 원고가 다 준비되었음에도 출판을 포기했다고 한다. 그 이유를 이봉수 사장은 “차별성이 없어서”라며 간단하게 설명한다. 이미 출판된 여러 종의 책이 있을 때 물러설 줄 아는 출판인의 자세를 볼 수 있는 경우이다. 이건희 회장이 강조한 말이 새롭다. “뒷다리 잡기해서 누구도 덕본 사람 없고 모두가 손해봤다”는 말이...

—이성수 기자

철학개론

철학과의 만남

B.A. 브로디 지음/이병욱 옮김/5,500원

이 모든 것의 철학적 의미는?

T. 네이글 지음/김형철 옮김/2,500원

철학의 문제들

B. 러셀 지음/박영태 옮김/3,500원

서양의 지혜

B. 러셀 지음/이명숙, 광각재 옮김/13,000원

철학의 뒤안길

W. 바이세델 지음/이기상, 이말숙 옮김/8,500원

철학에의 초대

오너, 헌트 지음/곽신환, 윤찬원 옮김/6,000원

철학에 이르는 길

강영계 지음/5,000원

소설 소크라테스

C. 메이슨 지음/최명관 옮김/4,000원

동양철학

중국 철학의 정신

馮友蘭 지음/곽신환 옮김/6,000원

노자 도덕경

노자 지음/조현숙 옮김/5,000원

감산의 莊子 풀이

감산 지음/오진탁 옮김/5,500원

주역의 이해: 주역의 자연관과 인간관

곽신환 지음/6,500원

돌부리에 채이고 가시에 찢리고

嚴北溟, 嚴捷 편저/곽신환, 신하령 옮김/4,500원

공자의 철학

H. 핑가레트 지음/송영배 옮김/3,000원

법구경

조현숙 옮김/6,000원

화이트헤드와 동양철학

김상일 지음/6,500원

철학서적
전문출판

서광사